

저마다... 단단함을... 자랑하는... 모래알처럼



2004년은 출판문화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해인들 건성으로 보낸 적이 있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2004년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출판문화계의 응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식산업의 가치를 밀천 삼아 문화란 이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응집력의 하나는 눈앞에 닥친 태국 방콕도서전(3월 26일~4월 6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참여할 것인지는 윤곽이 잡혔으나 방콕도서전에 참여하겠다는 출판사는 아직 극소수라는 전문이다. 한국의 문화를 아시아권 전체에 알릴 수 있는 주빈국 행사 라는 걸치레식 얘기는 그만두고, 방콕 역시 한류열풍이 감지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인 출판인들이 열중쉬어 자세로 불황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이 서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물론, 코앞에 닥쳤을 때 이리 저리 껍데기 들고 나가도 실전에는 강하지 않느냐 한다면 할 말이 없고, 아시아권의 주빈국쯤이야 대수로 올 게 없지 않느냐는 아시아의 문화맹주 연하는 오만함이 작용했다면 더욱 할 말이 없다. 이를테면, 중국과의 고구려 역사 싸움만 해도, 외교적인 입방아 싸움보다는 방콕도서전에 고구려 관련 서적과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외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하는 아쉬움만 삼길 뿐이다.



이제 모든 문화는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산업이란 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투자가 있어야 마케팅도 시도될 수 있으며, 마케팅에 의해서 소비계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더구나 개별 콘텐츠로 볼 때 한국의 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콘텐츠를 출판산업 분야로 편입시키려는 출판문화계의 노력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거나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출판문화계 인사들의 상상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정설이다. 저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그럼으로써 혼자만의 단단함에 취해 풍년가를 부르거나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알아주지 않으니 어찌나 고남 탓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성찰을 거듭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출판문화계 인사들이 여전히 불황 타령을 하면서 오늘은 책 주문이 몇 권이나 들어왔다 주문장 들여다 보기 바쁜 것 아닌가. 직원이 30명인 출판사나 10명인 출판사나에 따라 사장과 직원의 동선이 달라져야 하는데도 그런 차별화를 이룬 출판사는 기껏해야 10여 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출판저널>은 2월호로써 재창간 1주년을 맞았다. 1주년을 맞아 40년 가까이 출판문화계의 중심으로 자리해 온 민음사 박맹호 대표를 특별 초대석에 모셔 그의 특별한 출판역정과 오늘의 출판정신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다. 일정한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세 명의 아들 딸과 함께 4개의 출판사를 독립경영하고 있는 박맹호 대표의 묵직한 행보에서 책과 문화의 향취를 느껴보시기 바란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출판저널>을 빛내 준 도서목록과 저자를 비롯 필자 명단을 한곳에 모은 색인을 내보낸다. 이 색인은 과거에 대한 기록에 머물지 않고 <출판저널>이 보다 육화된 출판문화정론지로 갈 수 있는 모색의 방향틀이 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1년 동안 <출판저널>에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4년 2월 일

임동현 본지 주간